DECENT 디센트 법률사무소

규제 동향

보험 리베이트 제재와 GA 내부통제

경영인정기보험 · 컴슈랑스 영업에서 본 보험업법 위반 유형과 점검 사항

청년일보 · 헤럴드경제 보도(2026. 11.) 및 금융감독원 자료(2024. 10. 31., 2025. 2. 24.)

규제 동향

보험 리베이트 제재와 GA 내부통제

경영인정기보험 · 컴슈랑스 영업에서 본 보험업법 위반 유형과 점검 사항

청년일보 · 헤럴드경제 보도(2026. 11.) 및 금융감독원 자료(2024. 10. 31., 2025. 2. 24.)

핵심 요지

대형 GA가 경영인정기보험 리베이트 영업으로 수사를 받고 등록취소를 예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부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점검하며 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보험료 대납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나 가족 설계사의 수수료 수령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모집 여부, 적법한 등록과 위촉, 수수료 지급 근거, 최종 자금 귀속이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독당국은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 등록취소 · 업무정지, 계좌 추적, 수사기관 공조를 예고했습니다. GA는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기보다 평상시 GA 법률자문을 통해 영업방식과 수수료 구조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고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I.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예고 2

II. 금감원의 경영인정기보험 점검과 감독 방향 3

III. 금감원이 지적한 위반 유형 4

IV. 정상 영업과 위법의 경계 6

V. 제재와 형사처벌, 영업 측면의 위험 6

VI. GA가 지금 점검할 사항 7

VII. 자주 묻는 질문 8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I.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예고

수사 발표 내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6. 11. 11. 경영인정기보험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1]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설계사 명의를 빌려 받은 모집수당을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는 505명, 리베이트 규모는 약 732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분	보도 내용
리베이트 방식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 납부, 설계사 명의로 받은 모집수당을 대표 개인에게 현금 지급(대표 1인당 매달 1,000만원씩 14개월)
규모	법인 대표 505명, 리베이트 약 732억원, 조직이 받은 수수료 약 1,163억원
계약 운영	리베이트 재원이 부족하면 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 본사에 220억원대 손해
적용 혐의	보험업법 위반, 배임수재 ·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송치	총책 구속, 조직 관계자 · 법인 대표 · 명의대여자 등 230여 명 불구속 송치

경찰은 법인 대표들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가 확보된 대표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보험업법 외의 법률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등록취소 예고 보도

청년일보는 2026. 11. 15. 금감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대형 GA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2] 보도는 업계 관계자와 금융당국 등을 인용했고 이번 건에 관한 금감원의 별도 공개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록취소 예고는 최종 처분이 아닙니다. 회사는 소명 절차를 거치고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보도는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업계 분석과 함께 중견 GA 2곳에 대한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처분 결과와 별개로 위법한 영업 구조는 회사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1) 헤럴드경제, 2026. 11. 1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발표 보도(보도에는 GA 이름이 나오지 않음)
2) 청년일보, 2026. 11. 15.,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폐업위기'…금융당국, 대형GA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예고」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II. 금감원의 경영인정기보험 점검과 감독 방향

2024. 10. 31. 검사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금감원은 업계가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앞세워 판매를 늘리고 대표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컴슈랑스' 영업이 성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3)]

위반 유형	검사 결과(잠정, GA 4곳)	관련 법령
수수료 부당지급	계약 550건, 모집자격 없는 179명에게 약 72.1억원(1인당 약 4천만원) 지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특별이익 제공	계약 59건, 약 6억원(중소기업에 금전 제공, 노무 · 세무 · 특허 용역비 대납)	보험업법 제98조

금감원은 대표 자녀가 설계사 자격시험에 떨어졌는데도 4,5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GA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예상 조치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정해집니다.

2025. 2. 24.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잠정)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4)] 개인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나 상속에 활용할 수 있다며 판매한 절세 과장 설명,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금전을 직접 제공한 특별이익,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 다른 대리점 설계사 명의를 빌린 경유계약이 주요 사례였습니다. 설계사 세 명이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내고 20회 납입 후 해약해 954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내용
자금 추적	경유 · 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좌 추적으로 자금 원천 확인
제재	과징금 · 과태료 법정한도 100% 부과 추진, 위법 GA · 설계사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추진, 보험사와 GA에 관리 · 감독 책임 부과
형사	계약일 조작 등은 사문서 위조 · 변조 혐의로 고발, 특별이익 제공 · 무자격자 모집은 검 · 경찰과 협조
관계기관	국세청과 탈세 혐의 자료 공유

두 자료의 방향은 같습니다. 감독당국은 개별 설계사의 일탈을 넘어 GA의 수수료 구조와 관리 책임까지 보고 있으며 자금 흐름을 직접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2024. 10. 31.
4) 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 2025. 2. 24.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III. 금감원이 지적한 위반 유형

금감원 자료와 이번 수사 보도에 나온 사례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유형마다 왜 문제가 되는지와 회사가 살펴볼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적었습니다.

리베이트 · 특별이익 제공

보험 가입 대가로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 주거나 기업의 세무 · 노무 · 특허 용역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업법은 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해 시행령이 정한 소액을 넘는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감원은 용역비 대납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이를 요구해 받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GA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

점검 포인트	시책 · 수당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 계좌, 설계사가 고객 측에 송금한 내역, 제휴 세무 · 노무 · 특허 사무소에 대한 비용 지급 주체와 근거, '무료 컨설팅'을 안내한 영업자료

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 명의대여 · 경유계약

설계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모집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모집은 등록된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만 할 수 있고 모집할 수 없는 자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도 금지행위입니다.

무자격 모집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6)]

점검 포인트	설계사 등록 · 위촉일과 계약 체결일의 선후, 계약별 실제 상담 · 청약 진행자, 수수료 수령 계좌의 명의와 이후 이체 내역,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와의 수수료 정산 내역

5) 보험업법 제98조, 제202조, 제88조

6) 보험업법 제83조, 제86조, 제97조 제1항 제8호, 제99조, 제204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과장된 절세 · 환급 설명과 불완전판매

'전액 비용처리', '세금 없이 대표 개인에게 이전'처럼 불확실한 세무 효과를 확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만 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 효과를 내세워 판매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요사항 설명의무,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둡니다.[7] 위반하면 과징금 · 과태료와 함께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	상담 스크립트와 제안서, 세무 효과를 언급한 블로그 · 문자 · 카카오톡 안내문, 해피콜 녹취, 개인 · 개인사업자 계약 비중

부당승환 · 허위계약 · 수수료 목적의 계약 운영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들게 하거나 허위 · 명의차용 계약과 보험료 대납으로 수수료와 해지차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의 부당한 소멸과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동의 없는 계약 모집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청약이 1개월 안에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소멸로 봅니다.[8]

수사 보도에서는 리베이트 재원이 부족해지자 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해 본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나왔습니다. 수수료 구조를 이용한 계약 운영은 보험회사에 대한 배임이나 사기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	계약 유지율과 조기 해지 집중 구간, 같은 계약자의 해지 · 신규 시점, 보험료 납입 계좌와 계약자 명의의 일치 여부, 가상계좌 실입금자

설계사 · 지사 관리와 고객정보 관리 부실

위촉 · 해촉과 수수료 환수를 둘러싼 분쟁, 고객DB의 부적절한 수집 · 이용, 지사의 위법행위를 본사가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소속 설계사의 위반은 보험대리점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속 임직원과 대리 · 중개업자가 법령을 지키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9]

점검 포인트	위촉계약서의 수수료 · 환수 조항, 지사별 수수료 재분배 구조, 고객DB의 수집 경로와 동의서, 내부 신고 · 민원 처리 기록, 준법교육 이수 기록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8)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제3항
9)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IV. 정상 영업과 위법의 경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진의 유고로 회사가 입을 손실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회사의 필요와 재무 상황에 맞추어 보장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대표나 가족에게 부당하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낸 보험료가 수수료나 리베이트 형태로 대표 개인에게 흘러가면 특별이익 제공을 넘어 회사에 대한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족 설계사의 수수료, 사실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대표의 가족이 설계사로 등록해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사 등록이나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실제 모집업무	해당 설계사가 상담, 상품 설명, 청약 진행을 직접 했는지
등록과 위촉	계약 체결 전에 적법하게 등록 · 위촉되었는지, 소속 대리점이 맞는지
수수료 지급 근거	위촉계약과 수수료 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다른 설계사와 같은 기준인지
최종 자금 귀속	받은 수수료가 다시 대표나 회사 쪽으로 돌아갔는지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처럼 자격시험에 떨어진 자녀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첫 단계부터 위법입니다. 등록을 마친 가족이라도 실제 모집 없이 이름만 올렸거나 받은 수수료가 대표에게 돌아갔다면 명의대여나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V. 제재와 형사처벌, 영업 측면의 위험

행정제재

보험업법 위반은 GA에 대한 등록취소 · 업무정지, 과징금 · 과태료,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직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GA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신규 모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금전 제재보다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형사처벌

행위	근거	법정형
특별이익 제공, 이를 요구해 받은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업법 제20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모집 자격 없는 자의 모집	보험업법 제20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에게 돌린 리베이트 수수 · 공여	형법상 배임수재 · 배임증재(이번 수사에서 적용)	사안에 따라 판단
계약일 조작 등 서류 위조	형법상 사문서 위조 · 변조(금감원 고발 방침)	사안에 따라 판단

형사처벌 건수가 앞으로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계좌 추적과 검 · 경찰 공조를 예고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조직 관계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와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까지 송치되었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GA 내부에 그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영업조직과 경쟁력

위법한 영업에 기대거나 내부관리가 부실한 GA는 법적 책임 외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휴 보험사의 위탁계약 조정, 수수료 환수, 소속 설계사의 이탈, 고객 신뢰 하락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수료 구조와 영업방식을 투명하게 정리해 둔 GA는 감독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보험사와 설계사에게 안정적인 파트너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VI. GA가 지금 점검할 사항

검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와 체결한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GA 법률자문으로 기존 영업방식과 수수료 구조를 진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고쳐 두는 것이 회사와 소속 설계사를 함께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수수료 흐름 진단:** 보험사에서 받은 수수료가 지사 · 설계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좌 단위로 확인합니다. 시책과 별도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 **설계사 등록 · 위촉 점검:** 계약 체결 시점에 모집인이 적법하게 등록 · 위촉되어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설계사가 실제로 모집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고객 부가서비스 정리:** 세무 · 노무 · 특허 컨설팅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점검합니다.
- **상담 · 광고 표현 정비:** '전액 비용처리', '세금 없이 이전'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상담 스크립트, 제안서, 온라인 홍보물에서 걷어냅니다.
- **계약 운영 모니터링:** 조기 해지 집중, 해지 후 1개월 안의 신규 계약,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계약을 정기적으로 걸러냅니다.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 **지사 관리와 고객정보:** 지사별 수수료 재분배 구조와 고객DB 수집 경로 · 동의서를 확인하고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내부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 **보험대리점 준법교육:** 설계사와 지사장을 대상으로 리베이트와 정상 수수료의 경계, 상담 표현, 고객정보 보호를 실제 영업자료로 교육하고 이수 기록을 남깁니다.

이러한 점검과 교육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관리를 했는지는 감독당국이 GA의 관리 책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부분이므로, 실제로 운영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는 전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회사의 필요에 맞게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입니다.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대표나 가족에게 돌려주거나 절세 효과를 확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Q. 가족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리베이트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모집업무를 했는지, 계약 전에 적법하게 등록 · 위촉되었는지, 수수료 지급 근거가 정상적인지, 받은 수수료가 다시 대표 쪽으로 흘러갔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다르면 명의대여나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입 조건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GA가 계약자인 중소기업의 노무 · 세무 · 특허 용역비를 대신 낸 것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 설계사가 회사 몰래 리베이트를 주면 GA도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소속 설계사의 위반은 보험대리점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고 감독당국은 GA의 관리 · 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어떤 내부통제를 운영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등록취소 예고를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예고(사전통지)는 최종 처분이 아니며 회사는 소명 기회를 가집니다. 최종 처분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소명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개선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디센트 GA 전문 정기법률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위한 GA 법률자문 서비스로 '디센트 GA 전문 정기법률자문'을 운영합니다. 영업방식과 보험설계사 수수료 구조를 평상시에 점검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고쳐 나가도록 돕습니다. 세 상품 모두 변호사가 분기에 한 번 회사를 직접 방문해 준법교육을 진행합니다.

구분	라이트	베이직(주력)	플러스
월 자문료 (부가세 포함)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
월 자문시간	4표준환산시간	7표준환산시간	10표준환산시간
주요 범위	일상 법률질의, 기본 계약서 · 영업문구 검토	보험 모집방식, 수수료 구조, 설계사 계약, 고객 민원 검토	신규 영업모델, 주요 거래, 내부통제 규정 검토
제공 자료	월 처리내역	주요 수정사항 관리	분기별 주요 법률리스크 · 개선현황 요약
방문 준법교육	분기 1회	분기 1회	분기 1회

분기 방문 준법교육

- 지정 사업장 1곳, 회당 60분을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실제 영업자료와 직원 질문을 반영해 진행합니다.
- 교육자료, 배포용 가이드, 참석확인서 양식을 제공하고 정해진 교육과 기본 준비는 월 자문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리베이트와 정상 수수료의 경계, 경영인정기보험 · 컴슈랑스, 상담 · 광고 표현, 설계사 관리, 고객정보 보호, 민원 · 검사 · 수사 초기 대응 가운데 회사별로 주제를 조정합니다.

별도 협의 사항

- 정기자문은 계약한 GA를 위한 서비스로, 소속 설계사 개인 사건과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사 · 소송 및 검사 · 제재 절차의 공식 대리, 대규모 내부조사, 추가 사업장 교육과 원거리 출장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정기자문과 준법교육은 위법 위험을 미리 찾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표준환산시간, 초과 자문료, 계약기간 등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관련 구성원



진현수 대표변호사

기업 · 스타트업 / VC · 금융 / 국제법무

E elliot@decentlaw.io
T 02-6951-5248



임호균 파트너변호사

기업 · 스타트업 / VC · 금융 / 인사 · 노무

E brad@decentlaw.io
T 02-6951-5248



곽영윤 파트너변호사

형사 / 민사 / 인사 · 노무

E yoon@decentlaw.io
T 02-6951-5248

디센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과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공식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DECENT LAW FIRM. All rights reserved.